
<꼭읽어주세요>6/18(수),오후3시, 2차 집담회를 제안합니다~

2008년 6월 16일 오후 2:52

안녕하세요,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배여진이라고 합니다.

지난 6월 10일 촛불집회, 아마 인권단체들이 이렇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린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.

스티로폼 덕분에(?!?) 인권단체연석회의 참 유명해졌습니다. 뜻하지 않은 유명세 덕에 있는 욕 없는 욕 참 많이 먹기도 하였지만요^^;;

어느 한 활동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죠. "연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~" 늘 안티와 악플을 달고 사는 연예인에게 비하긴 좀 부족하지만, 그만큼 솔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^^ (혹시라도 상처받고 힘들었던 활동가들이 있었다면 함께 토닥토닥 ^0^,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연예인 욕 안 하기로 했다는;;;)

지금의 촛불 정국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.

혹시라도 이 촛불정국 때문에 다른 사안들이 묻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.

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,

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회적 의제들을 공론화 시키고 인권의 관점으로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촛불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

그래서

[지난 5월 27일 1차 집담회에 이어, 바로 내일 모레 6월 18일 \(수\) 오후3시 2차 집담회를 제안합니다.](#)

원래 지난 1차 집담회 때에는 6월 25일(수)에 2차 집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, 이 날짜의 집담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(변경 될수도 있습니다)

내일 모레 6월 18일(수), 오후 3시에 2차 집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

아래 덧붙이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구요,

이 밖에 촛불정국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많은 단체, 많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그럼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,

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.

- 여진 활동가 드림 -

* 장소 노들야학의 최고급 약도를 첨부합니다. 약도에서 빨간 글씨로 "노들센터"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. 같은 건물이거든요.

4호선 혜화역 2번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. ^^

=====

< 2차 집담회 >

◎ 언제 / 어디서 : 6월 18일 3시 / 노들야학

◎ 이야기거리

① 6. 10 직접행동 평가(일명 ‘스티로폼 직접행동’)

② 인권활동가들 촛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?(기존의 활동을 정비하고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준비)

- 공권력 감시 및 대응(집시법) :

경과보고와 활동 제안서(공감대 준비) / 의제를 확대 시키고(전의경 문제, 진압수칙 국제 기준 등) 시위 현장 감시 뿐 아니라 헌법 소원 등 촛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논의

- 직접 민주주의 :

<헌법 제1조 길거리 특강>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내용을 전달하고 대중들과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활동 계획

③ 자유 토론 : 기획팀에서 준비한 안건 외에 제안된 안건(정세토론이 필요할 거 같은데.....등등등..)